

재미와 감동, 웃음이 있는 방과후학교 만들기

경기도포천교육청 방과후학교 교육성과 발표회 및 워크숍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1월24일과 25일 양일간 포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열린 초·중등 방과후학교 교육성과 발표회 및 워크숍을 통해 2007년 방과후학교의 교육성과를 돌아보고 2008년 방과후학교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초·중등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는 최길용 교육장, 허숙희 장학사의 특강 및 송우초등학교와 대경중학교의 우수사례 발표, 청성초등학교의 보육교실 운영사례 발표와 포천 방과후학교 국악교실의 공연, 학교급과 분야를 달리한 분임토의, 교사 체험연수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되어 워크숍 참석 교사의 큰 호응을 받았다.

최길용 교육장은 특강에서 2007년 방과후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인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

적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포천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강사 확보, 보육교실 확대 운영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발전적 운영에 앞장설 것을 역설했다.

연수회에 참가한 대경중학교 강운숙 부장교사는 "초·중등이 함께 방과후학교 운영사례와 교육성과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의 연계 운영과 벤치마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라고 만족해하였으며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으로 교사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며 친근해져서 든든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가장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석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교육성과 발표와 국악공연으로 감동, 교육마술 실습, 공예 체험, 우수학교 방문 등으로 재미를, 연수 진행과 토론으로 웃음을 안겨준 연수회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방과후학교의 발전적 운영에 담당 교사들이 자발

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1월24일과 25일 양일간 포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열린 초·중등 방과후학교 교육성과 발표회 및 워크숍을 통해 2007년 방과후학교의 교육성과를 돌아보고 2008년 방과후학교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포천교육청 기능직 인사

- 기능7급 지방방호원 ▶지상진 영북초등학교 □기능8급 지방방호원 ▶김충환 신북초등학교 ▶유인홍 송우초등학교 ▶이금구 경북중학교 ▶박치왕 내촌초등학교 ▶이호철 삼성중학교 ▶안성일 이곡초등학교 ▶이찬호 갈월중학교 ▶김명호 축성초등학교 ▶서한필 영종초등학교

- ▶이도영 영광초등학교 ▶유재춘 영북중학교 ▶김용갑 송우중학교 ▶김영세 일동중학교 ▶권영주 포천여자중학교 ▶이용환 포천중학교 ▶이완기 청성초등학교 □기능10급 지방조무원 ▶최혜성 학무과 ▶양재창 추산초등학교 □기능10급 지방조무원 시보 ▶이경식 경기도포천학생아영장 (이상 1월18일자)

경기도포천교육청 일반직 인사

- 지방교육행정주사 ▶오용암 포천중학교 ▶안병만 갈월중학교 ▶정영진 일동중학교 ▶장인순 관리과 □지방교육행정서기 ▶서은주 신북초등학교(복직) □지방교육행정서기보 ▶국명선 학무과 ▶장세희 영종초등학교 ▶이영은 내촌중학교 □지방

- ▶방교육행정서기보(신규) ▶정경화 금주초등학교 ▶유경호 관인초등학교 ▶정창민 관리과 ▶신석점 추산초등학교 ▶노운정 포천초등학교 ▶김미라 보장초등학교 ▶김은애 포천삼천초등학교 ▶김효선 송우중학교 (이상 1월21일자)

직장인 위해 야간 연장 開館

시립일동도서관, 시민여가선용 항상 위해



시립일동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야간연장개관사업을 실시한다.

포천시 북학교육문화공간인 시립일동도서관에서는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야간 연장개관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월 29일부터 연중 실시하며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 등 도서대출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9시~18시에서 9시~22시로 4시간 연장한다.

시립도서관 야간연장개관사업 실시로 퇴근 후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직장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독서를 통한 지식의 증대와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시민들의 여가 선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 대출시간 연장 뿐 아니라 야간 문화교실 개최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승원 기자 form6@paran.com

교육에세이 63

1年農事在於春



이오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대선자가 발표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꿰뚫어나가는 것과 같은 어려운 관문이라는 것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승진을 위한 점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특히 앞으로는 10년 동안의 근무성적이 반영되는 새로 개정된 승진규정을 보면 신규교사로 발령 받은 후부터 9년 경력을 쌓을 때까지는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발령 받는 것이 승진을 위해서 유리하다. 근무경력 10년 되는 때부터는 높은 근무성적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또한 유리하다. 그런데 신규교사의 경우 장차 승진을 위해서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역에 근무를 권유해 보나 생활의 불편함과 홀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지역가산점이 부여되는 지역에 근무해 보라는 권유를 쉽사리 이해하는 교사가 드물다는 것이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올해도 역시 신규교사 중 대부분의 교사가 전출을 희망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권유했던 내용을 다시 권유해 보았으나 공감하는 교사는 없었다.

승진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할 가산점을 열거해 보면 경력, 연수점수, 연구점수, 보직교사경력, 연구시범학교 근무경력,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접경지역 학교 근무경력, 농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 대학원학위(석사, 박사), 청소년단체 지도경력, 통합학급 담당경력, 특수학급담당경력, 정보관련 자격, 수업실시경력, 방과 후 학교 담당경력, 농촌체험 학교 담당 경력, 특성화 학교 근무경력 등등 미미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분야가 많으며 상황에 따

라서 승진규정이 바뀌기므로 그때때 바뀌는 내용을 파악하여 그 분야의 점수도 확보해야 한다. 승진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미미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필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 지역가산점이 높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교사인데 그 당시에는 승진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1년 근무하고도 시 지역으로 전출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하다고 지난 날을 반성하는 교사를 보았다. 그 당시에 그곳에서 3~4년만 근무했다더라면 5년 전쯤에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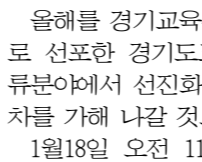
선생님들께 새해 덕담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리 장래에 대한 설계를 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듯 승진하기 위해서라도 승진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준비한다면 교직에 근무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年農事在於春'이란 말이 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농사를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미미리 준비할 것을 때에 맞춰서 잘 준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교직생활에서 승진이란 기회는 자실현의 욕구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미미리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는 자세가 중요하데 이에 대하여 교사들이 무관심한 것 같아 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문하곤 한다.

경기교육선진화의 원년 국제교류 선진화

경기도교육청, 아시안 다이얼로그 프로젝트 추진



1월18일 오전 11시30분 신임 인사차 내방한 주한 영국문화원 이안 김슨(Ian Gibson) 부원장의 예방을 받고 김진준 교육감은 경기도의 10개 중학교 학생들이 영국, 일본, 대 등의 중학생들과 2010년까지 3년간 지속가능한 학교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올해를 경기교육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경기도교육청이 국제교류분야에서 선진화를 향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월18일 오전 11시30분 신임 인사차 내방한 주한 영국문화원 이안 김슨(Ian Gibson) 부원장의 예방을 받고 김진준 교육감은 경기도의 10개 중학교 학생들이 영국, 일본, 대 등의 중학생들과 2010년까지 3년간 지속가능한 학교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한국 최초로 영국 모티머 중학교와 인터넷을 통한 원격 화상수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김진준 교육감은 김슨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문화원을 매개로 영국 및 아시아 6개국 중학교와 경기도 10개 중학교 학생들이 아시안 다이얼로그(Asian Dialogues)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구온

난화, 환경과학, 내일의 세계, 과학과 혁신, 스포츠와 건강, 세계시민의식 등을 공통 주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나가게 된다.

김 교육감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교류와 대화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리시 어드벤처 프로그램과 한영 중학교간 윈

난화, 환경과학, 내일의 세계, 과학과 혁신, 스포츠와 건강, 세계시민의식 등을 공통 주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넓혀 나가게 된다.

김 교육감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 학생들과 교류와 대화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리시 어드벤처 프로그램과 한영 중학교간 윈



지난 18일 김진준 교육감은 신임 인사차 내방한 주한 영국문화원 이안 김슨(Ian Gibson) 부원장의 예방을 받고 학교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차도 사람도 없는 도로

포천시 송우리 '주공 4길'의 교통문제 심각

송우고 주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2년 전 당시 부근에 아파트들이 입주 시작되고 송우고가 개교할 때까지 지역사회의 큰 우려를 안고 지금껏 지나왔다. 당시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도로 확충요구와 학교 개교(정문의 위치변경을 위해)를 미루려는 등 오늘날 같은 혼란을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현수막, 전단지 등으로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문제가 열려 속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즉 우선 과거에도 예상했듯이 발전과정에서 수반된 인구증가와 교통량 증가가 이미 정상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안은 다른 도시들도 안고 있는 문제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된 교통량은 아침시간 즉, 출근시간에 집중되는 데 그 대부분이 일대 학교들의 등교차량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된다. 특히 낮은 연령대의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나 안전의식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또한 문제인식의 중요한 가치라고 사유된다.

참고로 이 근방에는 풍납고, 송우고와 세화유치원, 추산초교와 조금 떨어진 곳에 대경중학교까지 송

우리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실제로 등하교시간에는 차량과 학생들이 얽히고 설켜 아찔한 상황이 종종 목격된다.

지난 5년 동안에 이 부근에서만 3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며 그중 피해자인 한 할머니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에 우선 보행자보호를 위해서인 인도를 살펴보자.

원래 우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가변 주차가 일반화되었고, 그로 인해 인도로 가는 차가 올라오는 등 '사람 없고 차 있는'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인도로 주차된 차를 돌아 도로 안쪽으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된 교통량을 아침시간 즉, 출근시간에 집중되는 데 그 대부분이 일대 학교들의 등교차량이라는 것이다.

김기정 학생명예기자 · 동남고 2년



우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가변 주차가 일반화되었고, 그로 인해 인도로 가는 차가 올라오는 등 '사람 없고 차 있는'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7

孔子曰 君子食無求飽 하며 居無求安 하며 敏於事而慎於言이오. 就有道而正焉 이면 可謂好學也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먹는 것은 배부리기를 구(求)하지 않고, 거처는 편안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 유도(有道)한 에게는 나아가서 자신의 옳고 그름을 바로 잡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나 거처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다.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자기가 아

는 것이라도 남에게 말하기를 어렵게 여긴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그 의견을 들어서 정확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학문하는 바른 태도인 것이다.



양주승 본지 지면위원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수와셀
9. <보기> : (2)
* 08:00 : 1)에잇러클락 (Eight O'clock.)
2)에잇한드렛 어워스 (Eight hundred hours.)
3) 에잇 에이엄 (Eight a.m.)
* 19:00 : 1) 세븐 피엠 (Seven p.m.)
2) 나인틴틴 한드렛어워스 (Nineteen hundred hours.)
* 23:30 : 1) 튀니뜨루 퍼리 (Twenty three thirty.)
2) 엘레븐퍼리 옛나잇 (Eleven thirty at night.)
*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었나?
핫스더스코어 나우?
<What's the score now?>
* 1 대 1 동점 이어
데이아터잇, 원부윈
<They're tied, one to one.>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심리상담 ④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아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소리가 '바바', '마마'입니다. 이는 발음하기 가장 쉬운 음이 '바'와 '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나', '하' 등이 있습니다. '나', '하' 등의 경우는 보통 2~3세의 경우 정확한 발음이 획득되고, '가', '아', '하'의 경우는 3~4세 경에 발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5~6세경이 되면 대부분의 소리를 발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직 어려 발음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발음이 가능한 시기를 찾아 아이의 연령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음기관의 문제입니다. 가령 구개파열이나

목구멍·치아·혀 움직임의 이상은 소리가 이상하게 발음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청력의 이상·뇌성마비 같은 신체의 이상이 경우 발음이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이 뒤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심신의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발음 장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엄마나 아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모방하며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말을 배우는 시기에는 정확한 표본이 필요하며 이 시기에 정확한 표본이 없을 경우 발음이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가 아직 어려서 발음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께서 가까운 병원이거나 언어 치료 가능한 센터를

방문해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서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정확한 발음을 유도하기 위해 정확하게 훈련시키거나 '정확히 다시 말해봐'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의식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문의: 우리 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주임연구원